

새것이 된 고린도교회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이사야 43:18-19, 고린도후서 5:17

정 윤 돈 목사님

* **사43: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고후5: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정신적 질환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과거의 상처와 이쁨, 미움, 섭섭함을 가지고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공황장애와 불안 등으로 나타난다. 제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하다보면 마약범죄 이후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교육으로 대체된 청소년들을 만난다. 이 중에서 귀신을 보는 친구가 90%다. 어떤 분은 ‘제 안에 악마가 가득하다’고 하더라. 태국에서 만난 사명자 중직자가 계신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마귀에게 끌려다녔으며 사탄의 정체를 알고부터 사명자가 되었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는데,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게 뭘까? 내 머리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조급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탄이 준 생각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없다. 대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하고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준다. 예수님은 사실 그러한 내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낼 수 있다. 두려울 때는 항상 기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빗 되신 말씀으로 박살내야 한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 기도문에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은 신앙생활하며 시험에 들 일이 많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저는 어릴 때 시험 보는 게 좋았다. 시험공부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다. 다 준비를 하니가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내도 팬찮았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까? 성경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로교 교리는 세계적인 천재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정립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배워야 한다. 성경 안에는 온갖 답이 다

있다. 성경만 잘 알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빠르게 답을 낼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돌에 매어 빠뜨리는 게 낫다고 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다. 목사가 저지른 죄와 일반 사람의 죄가 다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크다. 성경은 지도자가 죄를 지을 때는 소를 드리고, 일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다. 준비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쉬운 시험에도 불합격한다. 영적인 것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영적인 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께 받는 응답은 영원하다.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서 영적인 것에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현장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한 일을 행하신다. 모두에게 문제가 많다. 돈과 건강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연애문제, 사업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성공이 아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 보통 사람은 경제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그 문제 속에서 참된 기도를 하는, 갈급한, 상한 심령의 영적 상태를 원하신다. 무엇이 축복일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절대 속지 마셔라. 저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감사하다. 그 문제가 제게 기도제목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최고의 행복과 기쁨의 시간이고, 최고의 미래를 보장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기도하라. 말씀 붙잡아라. 이것저것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어떤 분은 축복을 참 많이 받은 분인데 심방해 보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꾸지람하고 싶다. 그분은 어떤 응답을 받아도 불만, 불평할 사람이다. 반면에 어떤 분은 이 문제, 저 문제 많은데 항상 웃으신다.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누가 성공자인가.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저희 부모님은 빚을 그렇게 지고서도 기뻐하셨다. 결국 나중에는 다 해결되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허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응답이 실상이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부르짖는 그것이 축복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고린도교회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권한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문제에 빠지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복음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세계복음화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게 내 생명과 바꿀 정도로 되어야 한다. 내게 조금 손해한다고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이 꼭 선교지에서 순교해야 할까? 가정에서 가정의 역할, 주부의 역할도 순교자의 마음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정말 순교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업, 학업을 못 한다. 영적서밋 안에서 기능서밋과 문화서밋이 되기를 바란다. 공부의 끝저 하더라도 복음에는 1등 하셔라.

오늘은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며 고린도교회를 어떻게 개척했을까?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붙여주시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아소과 같이 생명 걸고 전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전도에 실패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전도하려고 했었고 전도 팀이 없었다. 이후 바울이 회개하고 팀을 짜고 세상지식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오직 복음,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다. 매일 전도하다가 고린도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니가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로 갔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울이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냈지만 반응이 없자, 사도 바울은 직접 고린도교회에 방문을 한다.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당시 당파를 지어 싸우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와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편지를 다시 보낸다. 이 편지는 너무 감동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내용이 많아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전하고 돌아오던 디도를 빌립보에서 만나 고린도교회가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바울은 크게 기뻐하며 고린도교회에 고린도후서를 보낸다.

1. 당시 고린도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

(1) 첫째로 창세기 3장의 울무에 묶여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 오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문제다. 시험에 드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 분열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들이 싸우다보면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분열하고 죽이게 되는데, 그게 사탄의 울무에 묶인 것이다. 그러니 막상 진짜 중요한 일들을 못한다.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2) 고린도교회에는 창세기 6장 네피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타락한 문화와 우상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네피림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틀에 갇혀있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틀을 깨어야 한다. 사업과 일도 갇혀있으면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다녔다. 그게 네피림이고 더럽고 악한 것에 갇혀있는 것이다. 국가시험을 보면 과락이 있다. 나머지 시험을 다 잘 봐도 한 과목을 과락하면 불합격이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못 해도 과락은 해선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잘하는 것보다도 큰 잘못이 없어야 한다. 그게 지도자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시험을 볼 때 잘하는 것만 해서는 합격하지 못한다.

(3) 그 결과 그들은 창세기 11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즉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를 무시했다. 영적으로 시험 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대적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도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직장상관도 세우셨다. 이들을 대적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죽는다. 선생님을 무시하면 그 부분의 실력이 성장할 수 없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등교할 때 어머니보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저희 작은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영어선생님한테 손 위생 검사를 받다가 꾸지람을 당했다. 이후로 영어선생님을 너무 싫어했다. 영어선생님을 싫어하니까 영어를 계속 못하고, 직장에서는 승진이 안 돼서 사표 쓰고 담배만 피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여러분을 지적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나를 높이는 게 바벨탑을 쌓는 일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과 언변을 자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자인 것을 자랑하였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 예언이나 방언 등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신의 은사가 영적으로 더 높은 것이라고 다투었다. 뿐만 아니라 결혼문제, 성찬문제, 사도권문제, 헌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의 편지를 받은 후 결국은 새롭게 변화되었다. 과거에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도 다시 듣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 새로운 축복을 받기 바란다.

2.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간곡한 편지를 받고 회개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결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1) 사도 바울이 위로할 정도로 변화되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사용하고 있다. 바울이 꾸지람하고 상처받았을 것을 위로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꾸지람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회개하면 다시 위로 해 주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반성하고 회개하면 위로한다. 여러분도 잘못하면 바로 바로 회개해라. 그러나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다. 자존심과 바벨탑이다. 그것을 완전히 말씀으로 깨부숴야 한다.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욕당

하고 침해를 당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존심을 부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는 혹시 내가 역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2)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쁨 정도로 회개하였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변화되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4)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새것으로 변화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거듭나기 전에는 새롭지 않고 추악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깐 그 순간 새롭게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거듭났다’는 건 ‘하늘로부터 낳은 자, 영으로 낳은 자’라는 뜻이다.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시기 바란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잘못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이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 허물을 주께 자백하기 바란다. 주께 잘못을 이되면 주님은 깨끗하게 하신다.

(5) 고린도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하여 거액의 헌금을 할 정도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변했다. 이전에 고린도교회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싸우고 다투니까 선교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가 되었을 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거듭나고 천만 배의 응답을 받아 거액의 헌금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탄은 영으로 와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한다. 내 머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박살내야 한다. 상처 주는 이야기, 불신앙이 머리에서 나온다. 잘못된 불신앙과 염려, 걱정, 두려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박살내시기 바란다. 열두 제자, 이십사 장로, 70인 제자, 120문도, 오백여 형제, 3천 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②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홀룡해서가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다. 사탄에게 여러분의 영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지, 말씀과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강단을 포럼하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포럼할 때, 증인이 될 때 흑암이 박살난다.

③ 우리도 고린도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야겠다. 갱신하는 만큼, 새롭게 되는 만큼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암환자들은 먹는 것과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저는 조심하지 않는다. 아직 암을 안 걸렸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먹고 싶은 걸 잘 먹으면 된다. 건강한 사람은 술 한 잔씩 먹어도 되지만 알코올중독에 빠진 사람은 단 한 방울도 먹어선 안 된다. 10년간 술을 먹지 않았더라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그 문제들이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래서 마약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오히려 매우 경건하게 산다. 여러분의 불신앙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여유가 있으면 불신앙을 가끔 하지만 치유를 받았다면 불신앙에 한 마디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 말씀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복잡한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문제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로마서 16장 제자들처럼 준비되어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도록 하시고 나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살려내고 교회와 교단과 세계를 살려내는 전문인, 제자, 후대, 램뉘트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복의 근원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